

조선인들의 행복관 엿볼 수 있는 《조선회전백영집》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3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 주로 경제적·문화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일제 관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돈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몇 권의 저서도 발간됐다. 이 가운데 돈의 역사를 정리한 《조선전화잡고》와 별전 100개를 모아 탁본을 뜬 《조선회전백영집》이 있는데, 선조들의 행복관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돈을 멀리했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양반전>에서도 양반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수불집전'(手不執錢)이라고 한 것처럼, 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기생집에서 풍류를 즐기던 양반들도 화대를 줄 때는 접시에 동전을 엮은 다음 젓가락으로 집어서 줬다. 또 <양반전>에서는 '불문미가'(不問米價)라고 해, 쌀값을 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물론 선비가 돈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지만, 남산의 딸각발이처럼 살림을 등한시하다보니 아내들이 머리를 잘라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까지도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이 돈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풍습이다. 사대부들이 돈에 대해 지은 책은 별로 없었는데,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시대부터 돈에 대한 연구 시작돼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였다. 한국을 좀더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풍속을 연구하던 일제 관학자들이 돈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돈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몇 권의 저서도 발간됐다.

책은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돼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책 노릇을 하게 되지만, 그런 책들은 한꺼번에 많이 간행됐기 때문에 여러 곳에 소장돼 있다. 내가 관심을 두는 책은 한 권만 만들어진 필사본이다. 그런데 필사본도 대부분은 저자가 처음에 쓴 글을 후손이나 제자들이 다시 정리한 책이다. 언젠가는 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필사본은 목판본 못지 않게 정성 들여 썼으며, 후손 대대로 문중에서 잘 보관해 온다. 책을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다 베끼는 필사본과는 또 다르다.

내가 더욱 관심을 기울인 책들은 필사본 가운데서도 지은이가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써 놓은 초고본이다. 말하자면 필사본 이전

의 상태인데, 초고본에는 글쓴이가 자료를 더 구한 뒤에 쓰려고 준비해 놓은 항목들도 있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메모해 놓은 것도 있으며, 저술과는 관계없는 낙서도 있다. 심지어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써 놓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 재미가 있다.

돈의 역사 정리한 《조선전화잡고》

《조선전화잡고(朝鮮錢貨雜稿)》는 진한(辰韓)과 동옥저(東沃沮) 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이천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돈을 연구한 것인데, 특별한 목차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글자 그대로 잡고(雜稿)다. 앞부분은 조선총독부의 궤선지에 썼으며, 뒷부분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궤선지에 썼는데, 앞부분은 펜으로 쓰고 뒷부분은 붓으로 썼다. 나중에 고친 부분은 붉은 글씨로 썼으며, 이따금 생각난 것을 쓸 때는 연필로도 썼다. 실록을 인용할 때는 한문으로 썼으며, 자신의 생각을 쓸 때는 일본어로 썼다.

우선 문헌에 나온 돈의 종류를 철(鐵)·주전(鑄錢)·은병(銀瓶)·은동(銀銅)·쇄은(碎銀)·저화(楮貨) 등의 재료에 따라 정리하고, 현재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돈의 숫자를 종류별로 기록했는데, 흥무동보부터 경우원보까지 150개의 중국 돈과 고려 무덤에서 발굴한 동전부터 당대의 돈까지 그 숫자를 기록했다. 중추원 오다(小田) 서기관의 소장품 목록에는 화포(貨布)뿐만 아니라 신주경(神舟鏡)·구갑쌍작경(龜甲雙雀鏡) 등의 고경(古鏡)까지 포함돼 있어, 이들이 우리의 골동품들을 광범위하게 구입한 자취를 엿볼 수 있다. 그 뒤에는 아리가(有賀)의 소장품 목록이 실려 있는데, 주로 당(唐)·송(宋) 이후의 중국 돈이다. 그 뒤에는 총독부 박물관에 소장한 오다(小田) 소유의 목록이 실려 있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주화(鑄貨)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어서, 이들이 구입한 주화 가운데 덜 중요한 물건들만 박물관에 내놨음

을 알 수 있다. 발굴과정이 확실한 주화에는 출처를 밝혔는데, 다이쇼 2년(1913) 11월 26일 충청북도 연풍군 현내면 흥문동 옛 절터에서 우물을 파다가 발굴한 돈 등이 그런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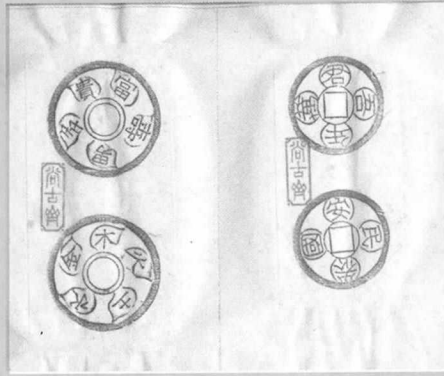
〈조선주조화대가표(朝鮮鑄造貨代價表)〉에는 진한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은화에 이르기까지 국명(國名)·전명(錢名)·도형(圖形)·대가(代價)·비고(備考)의 항목별로 기록했는데, 비고에는 그 특징을 적었다. 도형란에는 그 모습을 일일이 탁본하거나 펴서 그렸다.

〈조선천보(朝鮮泉譜)〉에는 자신들이 발굴한 돈의 소장처를 밝혔는데,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삼한통보(三韓通寶)의 경우, 이자(貳字) 유형은 현존품이 일본에 세개 있는데 모두 개성에서 발굴했으며, 전대양(擲大樣) 유형은 현존품이 일본에 세개 있고 경성에 네개 있는데 역시 모두 개성에서 발굴했다고 기록했다. 이를 보면 첫번째 발굴품은 우선 일본으로 보낸 뒤, 같은 유형이 다시 발굴되면 경성박물관에 소장하거나 총독부 직원이었던 이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듯하다.

이 책은 여러 명이 조사해서 기록한 것인데, 〈조선주조화조사(朝鮮鑄造貨調査)〉편에는 “김돈희(金敦熙) 조사(調査)”라고 조사자가 밝혀져 있으며, “5월 23일 수(受)”라는 접수일자 뒤에 아리가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가 조사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김돈희(1871~1937)는 한말에 법무검사를 지냈던 서예가인데, 당시 중추원 촉탁으로 일하고 있었다.

복을 빌었던 별전

돈은 상품이나 노동력을 사고 팔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매개수단이다. 그래서 돈에는 반드시 그 값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값을 정하지 않고 만든 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상평통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별전(別錢)이라고 불렀다. 글자만 써서 있는 일반 주화와는 달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일본에서는 회전(繪錢)이라고 했다. 엔칭 도서관에는 《조선회전백영집(朝鮮繪錢百影集)》이라는 탁본집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별전 100개를 모아서 앞뒤로 탁본을 뜬 책이다. 상고제에장품(尙古齋愛藏品)이라고 판심(版心)을 찍은 종이 25장에 앞뒤로 두개씩, 모두 100개의 별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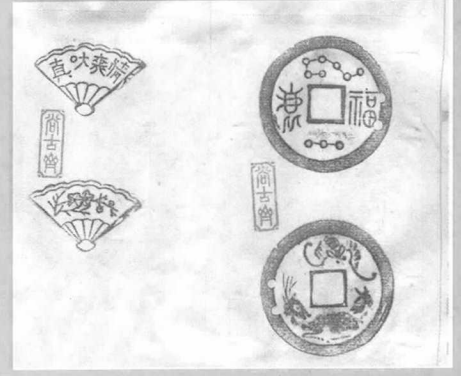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별전이라 불렀다. 이 별전에는 복을 비는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어 우리 조상들의 행복관을 엿볼 수 있다. 사진은 오군만년, 수부귀다남 등을 새긴 별전(왼쪽)과 돈에 그림을 새긴 복록.

모아 탁본했는데, 별전 하나를 또한 앞뒤로 탁본했으니 탁본은 모두 200개가 되는 셈이다.

이 책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런 책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도서관에서 1959년에 구입했다는 기록과 회전(繪錢)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광복 이전에 엮은 책이라고 짐작될 뿐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별전 100개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편집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목차는 없는데, 주로 왕실에서 만든 별전들이 앞에 실렸고, 개인적으로 만든 별전들이 뒤에 실렸다.

상평통보의 모형전(母型錢)을 주전청에서 주조할 때 동질(銅質)이나 중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별전을 만들었는데, 이 별전은 물론 유통가치가 없었다. 왕실에서 경사가 있을 때도 별전을 만들었는데, 이때에는 왕실의 무궁한 복을 비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념주화가 됐다. 이런 별전들은 일반인들이 구경하기 힘들었고, 상류층 부인들이 노리개를 만들어 찼다.

이 책의 첫장에는 왕실의 복을 비는 오군만년(吾君萬年)과 수부귀다남(壽富貴多男)의 별전을 실었다. 오군만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임금께서 만년 사시기를!” 비는 내용이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왕실에서 이 별전을 만들어 관원들에게 나눠주면, 점잖은 이들에게 선물하거나 노리개로 삼아 차고 다녔다. 금수화토목(金水火土木)은 오행전(五行錢)이라고도 했는데, 원래는 다섯 개의 동전이다 글자를 하나씩 새겨 정월 대보름날 한자리에 모여 오행전을 흔들며 점을 쳤다고 한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와



하나의 별전에 다섯 글자를 다 쓰고, 뒤에는 그 짝을 “수부귀다남”이라고 썼으니, 이 별전을 보면 조선인들의 행복관을 엿볼 수 있다.

동궁만세(東宮萬歲)는 조선왕실의 마지막 세자인 영왕(英王) 이은(李垹)의 동궁책임을 경축하기 위해 만든 별전이다. 둘레에는 “해와 달의 빛이 우주에 넓게 비치고[日月光明洪宇宙], 길고 긴 수명과 덕스런 빛이 온천지에 드넓다 [億壽德光浩天地]”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복록(福鹿)은 도화전(圖畫錢)이라고 하는데, 네모난 구멍 위아래로 그림을 새긴 별전이다. ‘복스런 사슴’이란 뜻의 복록 두 글자 위에는 복두칠성을 그리고, 아래에는 삼태성을 그렸다. 뒤에는 사슴 세 마리를 그렸다. 부채형에는 ‘청상대진’(淸爽大眞)이라고 써서 더운 여름에 맑고 시원한 바람을 염원했으며, 뒤에는 벚꽃을 그려서 부귀영화를 염원했다. 새봄을 맞으며 입춘첩(立春帖)에 썼던 그들의 염원을 별전에 새겨서 일 년 동안 지니고 살았던 것이다. 별전 100개의 그림을 앞뒤로 탁본해 편집한 이 책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행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책이다.●